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 시사된 구원

沈 芳 子*

목 차

I. 서론	2. 구원의 가능성에 시사된 사람들
II. 본론	1) Hepzibah Pyncheon
1.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2) Clifford Pyncheon
1) Colonel Pyncheon	3) Phoebe Pyncheon
2) Matthew Maule	4) Holgrave Maule
3) Young Matthew Maule	III. 결론
4) Judge Jaffrey Pyncheon	

I. 서 론

Hawthorne은 인간의 내재적인 악(evil)에 집요하리만치 관심을 둔 작가이다. 인간이 자기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이 죄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다른 작가로, 역시 인간의 내재적인 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서 Hawthorne 자신은 특히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를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었다고¹⁾ 하였으며, 이 작품은 다양한 주제와 그 주제들의 상호 연계성²⁾, 유머러스하고 낭만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복합적 분위기³⁾ 등의 표현이 뛰어난 글이다.

* 숭실대 영문과 교수

1) Donald J. Crowley (1970), *Hawthorne : The Critical Heritage*, New York : Barnes, p.204.

2) Hyatt H. Waggoner (1963), *Hawthorne : A Critical Study*, Rev. ed., Cambridge, MA : Belknap-Harvard UP, p. 152.

또 이 작품은 Hawthorne의 가장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즉 자신의 고향인 Salem의 과거를 재현하고 있으며, 중심인물인 Phoebe는 자신의 아내인 Sophia-Phoebe는 Sophia의 애칭이기도 하다를, Hepzibah는 자신의 어머니인 Elizabeth를 모델로 삼고 있는 등 작가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⁴⁾

칠박공의 집은 Hawthorne이 말하듯이 인간의 내면의 심성을 뜻한다. “생명이 없고 끔찍한 죽음이 고독하게 앉아있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낡은 집은 여러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다.”⁵⁾ 동시에 칠박공의 집은 Pyncheon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선악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무대가 되는데, 그 무대 안의 등장 인물들은 모두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의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른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만, 시기, 노여움, 나태, 폭식, 호색, 탐욕 등 일곱가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며 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여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러나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서 특이한 것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기대되는 인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에 착안하여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서의 인물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죄의 유혹에 넘어가 타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인생도 파멸하는 부류와, 사랑으로 인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물들의 부류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Pyncheon과 Maule가 두 가문의 주요 인물들 중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룹에 속하는 Colonel Pyncheon, Matthew Maule, Young Matthew Maule, Judge Jaffrey Pyncheon과 구원의 가능성이 시사된 사람의 그룹에 속하는 Hepzibah Pyncheon, Clifford Pyncheon, Phoebe Pyncheon, Holgrave Maule 등 인물들의 분석을 통하여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서 Hawthorne이 말하고자 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원’의 의미를 정통 칼비니즘에 입각한 신학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자

William B. Dillingham (1959). "Structre and Theme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 New York: W. W. Norton (1967). Dillingham은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중심주제에 얹혀 하나의 “통합된 양상블”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p.409.

3) Malcolm Cowly ed. (1947), *The Portable Hawthorne*, New York: Viking, p. 547.

4) Mark Van Doren (1949),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 William Solane Associates, Inc., p.172.

5) Nathaniel Hawthorne(1851),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ed. Seymour L. Gross. New York: W. W. Norton 1967. p. 295. 이후 본 논문에서 작품인용은 괄호안에 페이지의 숫자만 기입함.

기의 죄에 대한 참회, 선행, 사랑을 통한 도덕적 승리라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II. 본 론

1.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1) Colonel Pyncheon

Colonel Pyncheon은 탐욕의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 Maule의 집터가 탐이 나서 그를 wizard로 몰아 처형하고 그 자리에 칠박공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Matthew Maule의 아들, 목수 Thomas Maule을 시켜 집을 짓는데, 그의 오만을 반영하듯 당당하게 마치 자손 만대에 물려줄 집인양 생각하고 건축한다. 그러나 그는 집들이 날 Maule의 저주처럼 피흘리며 죽는다. 결국 자신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지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되고, 자손들에게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오욕과 치욕의 유산만 물려주었을 뿐이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손에게 재산에 관한 서류(Indian Deed)를 전하지 못하여 Maule에게서 빼앗은 재산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Colonel Pyncheon의 이중성은 “holding a Bible with one hand, and in the other uplifting an iron sword-hilt. The latter object, being more successfully depicted by the artist, stood out in far greater prominence than the sacred volume.(33)”로 묘사되는 그의 초상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가 Maule을 마법사로 단죄하여 처형시킨 것은 신앙이라는 신성한 명분을 빙자하여 자신의 물욕을 채우려는 것이었다.

결국 무모하고 맹목적인 탐욕때문에 Colonel Pyncheon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마저도 끔찍한 죄후를 맞게된 것이며, 그 자손들에게까지 벗어나기 힘든 죄의 그늘을 드리우게 한 것이다.

2) Matthew Maule

Matthew Maule은 Colonel Pyncheon에게서 피해를 입은 자이지만 실제로는 Pyncheon가에 저주를 내린 가해자이다. 그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 행위-교만과 타인의 영혼세계를 탐색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의 인간이었다.

그는 wizard로 몰려 재산을 몰수 당하고 처형당하면서 자기의 처형 장면을 말을 타고 지켜보는 Colonel Pyncheon에게 “신이 그에게 피를 마시게 할 지어다(8)”라고 저주를 내린다. 이로써 Matthew Maule은 죽음의 순간에 피해자로 그치지 않고 Pyncheon가에 저주를 내려 가해자가 되고 Colonel Pyncheon과는 또 다른 죄의 근원이 되었다.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용서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은 것이고, 이렇게 하여 칠박공의 집에 얹힌 복잡한 운명들의 선악의 드라마는 시작된다.

3) Young Matthew Maule

Gervaise Pyncheon이 곁으로는 깊은 신앙인처럼 행동하여 “the worshipful Pyncheon”이라 칭송받지만 내심으로는 할아버지 Colonel Pyncheon이 원주민으로부터 매입했던 동부 광활한 땅을 획득할 수 있는 문서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Gervaise Pyncheon이 딸 Alice를 “몸을 끓는 시술보다 천배나 더 모욕적인 노예상태(208)”에 맡기자 목수 Young Matthew Maule은 아름다웠지만 교만한 듯한 Alice에게 죄면을 걸어 자기에게 굴종하게 만들고, 감기에 걸려 죽게 만든다. 이것은 Maule가가 Pyncheon가에 갖고 있는 원한을 그들이 가진 죄면술 등의 기이한 능력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Pyncheon가의 사람들이 대낮에 거리에서는 거만스럽게 걸어다니지만 혼란스런 수면의 세계에 들어오면 비천한 Maule의 노예나 다름 없었다.”(26)는 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가문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악연으로 서로 얹혀 있는 것이다.

Young Matthew Maule은 타인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에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정신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Pyncheon가 소유권에 대한 진정한 주인은 자기라는 생각으로 Gervaise Pyncheon앞에 당당하게 행동했다.(19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erence Martin의 지적대로 Pyncheon가와 Maule가의 공통된 요소를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불타는 할아버지 Maule의 저주를 빼속깊이 공유한 인물인 목수 Young Matthew Maule은 아름다운 Alice를 좋아했으면서도 죄면술이라는 black magic을 이용하여 남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다. “그녀는 나의 것(206)”이라고 Alice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녀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했다. 그러나 Alice가 죽었을때 운구행렬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 가장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도 바로 그였다는 것을 보면, 그에게 Alice를 향한 진정한 감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

6) Terence Martin (1965),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Twayne Publishers, p.136 참조.

로 사랑했더라면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야기치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물욕으로 인하여 Maule가의 후손의 마술에 맡겨 딸 Alice를 잃어버린 Gervayse Pyncheon은 물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목수 Young Matthew Maule도 복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 까지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다.

4) Judge Jaffrey Pyncheon

Jaffery Pyncheon은 자기의 사촌 Clifford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모함하여 30년 징역을 살게했다. 즉 그는 Clifford에게 주어질 유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한 점이 그의 선조 Colonel Pyncheon과 같은 점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그는 외양에 있어서도 Colonel Pyncheon을 닮았다. 또 그가 Hepzibah에게 찾아왔던 것도 호의에서가 아니라 Clifford가 재산에 관한 서류(Indian Deed)의 소재를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내심 Hepzibah와 Clifford를 무시하는 오만한 Jaffrey Pyncheon은 세속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악마에게 판 것과 다름없다.

그는 본래의 표정은 그렇지 않으나 대중을 이용하기 위해 독특한 미소를 짓는다. 이는 Phoebe의 천성적으로 밝은 미소와는 대조적이다. 그가 Clifford를 찾아 칠박공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의 미소는 마치 집안의 음울한 공기를 얼굴의 빛으로 맞서겠다고 마음먹은 듯 점점 더 강렬해 진다.(117)” Hepzibah에게 다가갈 때 그는 “겉으로 드러난 반 정도만 뜨겁더라도, 그 열기에 포도넝쿨이 자주색으로 변할 것같이 아주 활짝 그리고 뜨거운 웃음(127)”을 짓는다. 그러나 그러한 웃음은 내면의 목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어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미소는 무섭게 본색이 드러나기도 한다.

인사하는 상대방의 표정에 맞추어 자기의 위엄의 표현을 달리하는 판사의 모습은 칠박공집 건너 큰 시장에 빙글거리는 장사꾼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부유하고 모범시민의 영예를 누렸고, 세상사람들이 보는 판사의 외적인 모습은 햇빛에 반짝이는 궁전에 비유되고 있으나 이 건물 어디인가 사람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Holgrave가 Phoebe에게 “이사람(Jaffery)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유쾌한 얼굴에 자비와 열린 마음과 꽤 활한 유머와 또 다른 칭찬받을 만한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92)” 그러나 사진 속에서의 얼굴은 “교활하고 미묘하고 굳어 있고 오만하며 게다가 얼음처럼 차갑다.(92)”고 한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뒤에 Judge Pyncheon도 Colonel Pyncheon처럼 의자에 앓아서 죽게 되고,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Uncle Pyncheon의 죽음도 Pyncheon가의 일종의 유전병인 Apoplexy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Clifford가 뒤집어 썼던 살인누명은 벗겨지게 된다. 또 아이러낙하게도 탐욕을 부리고 Clifford에게서 재산을 빼앗았으나 자기가 죽은 후 외아들도 죽고 그 재산은 다시 Clifford, Hepzibah, Phoebe에게로 돌아간다.

이렇듯 가장된 미소 뒤에 숨은 끝이 없는 탐욕은 Jaffrey Pyncheon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다.

2. 구원의 가능성의 시사된 사람들

1) Hepzibah Pyncheon

Hepzibah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스스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60평생을 칠박공의 집에 갇혀 살다시피 살고 있는 기이한 인물로, 이성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서가 마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감시한 결과 퇴화된 이 집 정원에 남아있는 Chanticleer 닭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몰락하고 황폐한 상태이다. 이 가문의 사람들은 Venner아저씨의 말처럼 “쉽사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사람들(63)”은 아니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유서깊은 가문의 딸이라고 생각하여 보통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만함으로 인하여 더욱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시력이 나빠서 얼굴을 찌푸린 것을 Hepzibah가 오만해서 그런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녀는 겉보다는 속이 따뜻한 사람으로, 그러한 점은 동생 Clifford에 대한 사랑과, 평민인 Holgrave를 칠박공의 집에 받아들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Hepzibah는 동생 Clifford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그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점을 여는데, 이는 자존심을 꺾고 오만의 죄를 극복하는 계기이자 시작이 된다. 초라한 상점일뿐만 아니라 성공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시골서 온 친척 Phoebe를 받아들여 점점 더 그녀와 친밀해지고 Phoebe에게 상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때 등장하는 친척 소녀 Phoebe는 어두운 칠박공의 집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된다.

Hepzibah는 Pyncheon가의 후손 Phoebe가 상점 경영이나 가사같은 현실문제에는 적절히 대처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그녀 자신의 쓸모 없음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또 종종 Phoebe에 대하여 자신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귀족기질이 아니고 평민적 기질인 것을 한탄하기도 하면서, 상점 문을 열게 됨으로써 귀부인에서 내려와 평민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을 괴로와 했지만 언급한 것처럼 상점 문을 연

것은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 Holgrave가 개업을 축하하면서 Hepzibah가 상점을 연 것은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며 “인류의 통합된 투쟁(45)”에 함께 기여하게 된것이므로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리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단절되었던 칠박공의 집에서 이 상점은 그녀와 외부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Judge Pyncheon을 피하기 위하여 Hepzibah가 Clifford와 칠박공의 집을 박차고 나와 방황하다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 하는 기도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267)”는 참회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한다. 이렇듯 오만함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상점을 여는 것과 가엾은 동생Clifford에 대한 헌신적인 우애와 정성은 그녀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Clifford Pyncheon

Clifford는 피해의식은 있었으나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힘든 감옥생활에서도 이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Judge Pyncheon로부터 Matthew Maule의 죽음에 벼금 가는 기가막힌 박해를 받았으나 그를 두려워 하고 피하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원한이나 복수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로써 그는 또 다른 인과응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오만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억울하게 30년간을 소외되어 있었다. 30년의 옥고로 인해 Clifford는 미를 사랑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그의 민감성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이기적인 쾌락이나 음식에 대한 탐욕,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등으로 거의 백치에 가까운 어린아이처럼 되어있었다. 이러한 Clifford에게 아름답고 쾌활한 모습을 지닌 Phoebe의 존재는 그를 평범한 삶으로 조화롭게 복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1-42) 또 Hepzibah의 헌신적 사랑과 Phoebe의 영향으로 교회에 가려고 시도를 하는 등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세상으로 합류하려는 의지도 보여준다. 특히 그가 2층 창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뛰어내리려 했던 것은 그의 그러한 심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그는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의 생활에서 소생의 의지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그로 하여금 여행을 떠나게 했으며, 여행에서 Hepzibah를 앞서 인도하고 배려하는 것은 Clifford가 점차 생의 의지와 자신감을 회복하여 누나 Hepzibah의 자기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과 그의 정상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의 바램이나 의지에 비해 그 스스로 상황을 깨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Clifford가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Phoebe의 도움의 손길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Clifford나 Matthew Maule은 모두 타인들의 물욕때문에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희생자이지만 그들의 대처방법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Matthew Maule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원수에게 저주를 내린 것과는 달리 Clifford는 원한이나 복수보다는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에의 회복을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헛된 욕심에 대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위에 집을 짓는 대지 - 이것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죄의 온상이다.(229)”라고 하면서 인생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뿐이고 무자비한 물질의 힘이란 허무한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Clifford가 구원의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Phoebe Pyncheon

Phoebe Pyncheon은 New England 시골에서 자라 Pyncheon가의 오만의 기질을 받지 않고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컸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고, 생활에서 유능하고 장사도 잘했으며 마을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려 소외의 죄하고도 관련이 없다. 착한 Phoebe에게도 Hepzibah와 Clifford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럽기도 하였으나 수월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Hepzibah와 Clifford에게 잘 대해 주었고 그들 두 사람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Hepzibah와 Clifford는 Phoebe를 신뢰하여 가게를 꾸려나가게 한다. 또 Judge Pyncheon의 죽음을 마을에 알리도록 하여 Hepzibah와 Clifford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처리한다. Holgrave에게도 무시하거나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대한다.

Hawthorne은 아름답고, 미소도 자연스러우며, 솔직한 자기 부인 Sophia Peabody를 모델로 하여 Phoebe를 그리고 있다. 언제나 겨울같고 눈 바람이 깃들이던 우울한 집에 그녀로 인해 햇빛이 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다시 지저귀게 된다.(74) 그녀의 이름도 태양의 신 Phoebus의 여성형인 Phoebe로 이는 “shining”을 뜻한다. 그녀는 집안 일을 돋고 가게를 꾸리고 닭을 기르고 Clifford에게 봉사하며, 그녀의 힘으로 밝아진 칠박공의 집으로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의 꿀벌들이 날아 오기도 한다. 이렇듯 죄악내지는 탐욕을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Phoebe는 Hepzibah에게 절대적인 위안의 요소가 되어 행복의 감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Clifford에게도 그의 감정과 생활을 보통사람의 그것과 조화롭게 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Holgrave에 대한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마침내 Pyncheon가뿐만 아니라 Holgrave까지 구원하게 된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Holgrave의 행동을 Phoebe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위선과 교만을 지적한다. 이렇게 냉정하고 위선적이던 Holgrave가 최면의 방법을 거부하고 Phoebe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그는 냉정한 관찰자 내지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Holgrave는 Phoebe에게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빈다. (217) Holgrave가 Pyncheon판사의 시체와 단 둘이 남겨졌을 때 “세상은 이상하고 거칠고 사악하고 적의에 차 있었으나 Phoebe가 들어오자 희망, 따스함, 기쁨이 함께 들어왔다.”(306)고 말하는 장면 역시 적대감, 고립, 우울에서 벗어나 Holgrave가 건전한 인물로 변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Phoebe는 작품의 “구조상 주요한 중추”가 되고 “주제상의 통일성”을 주는⁷⁾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Hepzibah와 Clifford의 고립과 억압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고 자신의 밝음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히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진지게 생각하는 성숙한 인물로 변하게 된다. Hepzibah도 이러한 Phoebe를 “진정한 뉴잉글랜드 숙녀(74)”라고 부르며 Uncle Venner도 Phoebe를 천사에 비유(82) 하는 것은 극히 적절하다 하겠다.

결국 Phoebe는 같은 Pyncheon가의 딸이지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수 Maule에게 끌려다니다가 비극적인 일생을 마치게 되는 가련한 Alice Pyncheon과 대조적으로 Holgrave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을 한다. 그리고 Pyncheon판사의 시골저택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는 Pyncheon가와 Maule가 두 집안의 유전적 죄에서 벗어나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Chanticleer 식솔들도 전과 다르게 활기에 차고, 암탉도 알을 잘 낳는다는 것 모두 긍정적인 결말을 상징하는 것이다.

4) Holgrave Maule

Holgrave는 시골 학교 선생, 상점 주인, 치과의, 최면술 강사 등 다양한 직업 경력을 가진 유능한 청년으로 현재는 은판사진사이다. 그는 크게 많은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나 기본을 지키며 살아왔으며, 영혼 세계를 탐색하는 눈을 가졌다. Maule가의 후손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칠박공의 집에 들어간 그의 본래의 목적은 Pyncheon가에 대한 복수를 실현시키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Holgrave는 곁으로는 부드럽고 건전한 청년이나 내면에는 이상한 빛을 지닌 이

7) Alfred J. Levy (1967),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The Religion of Love"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 New York: W. W. Norton, p. 460.

중적 인물⁸⁾로서 그는 Clifford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를 탐색하고 싶다고 Phoebe에게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는데,(178) 이것은 그의 마음에 복수심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aule가 사람들은 그들 특유의 미술과 기난, 은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과묵한 성격과 스스로 택한 고립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Holgrave는 이같은 자기 가계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사람들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문제를 자신에게 설명하려 한다.(216)”

하지만 Holgrave는 Phoebe를 보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Alice의 얘기를 들려주다가 Phoebe에게 죄면을 걸 수도 있었으나 유혹을 물리치고 미술의 힘이 아닌, 정식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이것은 그의 조상인 목수 Young Matthew Maule⁹⁾ Alice Pyncheon에게 죄면을 걸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그리고 또 그는 괴팍한 Hapzibah나 Clifford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정상으로 복귀되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Judge Jaffrey Pyncheon이 죽어 있었을 때 Clifford나 Hepzibah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었다.

Holgrave는 Phoebe와 함께 각기 가문의 죄와 원한들을 떨쳐버리고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며, 한편으로는 과거로부터의 전통과 제도에 대해 새롭게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Holgrave가 잡지에 투고하려고 써놓은 것으로 Phoebe에게 읽어주는 Alice Pyncheon의 이야기는 Maule가와 Pyncheon가의 갈등을 액자소설 형식으로 그린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Phoebe에게 그의 괴괴적 위력을 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사랑은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겠다.⁹⁾

Holgrave는 자신을 성찰하고 Pyncheon가 후손들의 영혼세계를 탐색하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Maule가가 가진 Pyncheon가에 대해 복수하려는 욕망을 버리게 한다. 이러한 Holgrave의 전환은 그의 의지의 위대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Phoebe에게 도움을 청한다.(301-302) 또 환희에 찬 마음으로 세상을 대면한다.(213-14) 그리고 여태까지 숨겼던 Maule가 후손인 자기의 정체를 밝힌다. Holgrave는 그의 조상과 달리 유혹을 거부하고 주변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8) Agnes Mcneill Donahue (1985), *Hawthorne : Calvin's Ironic Stepchild*, Kent State UP, p.83.

9) Edward Wagenknecht (1989), *Nathaniel Hawthorne : The Man, His Tales and Romance*, New York : Continuum, p.108

Richard Brodhead (1973),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 Chicago UP, p.85

III. 결 론

인간은 누구든지 욕심과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옳지 못한 수단에 의존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Maule의 대지를 탐낸 Colonel Pyncheon이나 Clifford에게 돌아갈 유산을 가로채고 싶었던 Jaffery Pyncheon과 같이 옳지 못한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 영혼의 평화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Hawthorne은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작품은 파멸과 구원의 비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더 높이 평가 된다.¹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파멸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네사람 모두 옳지 못한 충동에 굴복한 연유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잃었다.

이에 반해 이와같은 충동에 저항하고 유혹을 이긴 네사람, Hepzibah Pyncheon, Clifford Pyncheon, Phoebe Pyncheon, Holgrave들은 모두 구원의 빛이 보이고 행복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는 유혹을 뿌리치고 도덕적 승리를 성취하는 사람이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동화같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Henry James가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has, however, more literal actuality than the others, and if it were not too fanciful an account of it, I should say that it renders, to an initiated reader, the impression of a summer afternoon in an elm-shadowed new England town.¹¹⁾(밑줄은 논자에 의함)

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한편 Arlin Turner가 지적하고 있는 작가 Hawthorne의 특성:

We may feel as Herman Melville did that the best of Hawthorne was "the power of blackness" which his transcendentally optimistic contemporaries were not

10) Terence Martin (1965),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 Twayne Publishers, p.141

11) Henry James (1879),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 New York: W.W.Norton(1967) p.360.

prepared to appreciate, but we can accept Hawthorne's contention that his own mind reflected the light along with the dark.¹²⁾(밀줄은 논자에 의함)

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성향, 구원의 가능성과 일맥상통하고, Hawthorne이 빈번히 다루고자 했던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며, 그가 가장 인간적인 정서로 품고 있는 것 역시 연민의 정이라고 한 Ted Lewis Allder의 주장¹³⁾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 또 이것 은 Hawthorne의 재학시 Bowdoin College 교수였던 Thomas C. Upham에게서 받은 영향에 힘 입은 바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¹⁴⁾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타인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작가 Hawthorne 이 하나의 도덕적 교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의 서문에서 Hawthorne은 선조의 죄가 후손에게 계승된다는 죄의 상속 사상과 그로 인한 피해의식을 주장¹⁵⁾하는 것도, 죄는 한 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죄로 인한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많은 회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항상 내면의 악한 성향을 경계하고 이에 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사랑, 참회, 선 행을 통하여 도덕적 승리라는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이 작품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12) Arlin Turner (1961), *Nathaniel Hawthorne :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 Barns & Noble, p.78

13) Ted Lewis Allder (1992), *Nathaniel Hawthorne's Major Romances : Hoping Against Hope*, Carbondale, UP of Southern Illinois, p.15

14) Claudia D. Johnson (1973), "Hawthorne and Nineteenth-Century Perfectionism", *American Literature* Vol. XLIV No. 4 Jan., Upham과 그의 동료 Perfectionist들은 Hawthorne의 주제와 관련있는 "성숙한 인간(the perfected men)"의 필수적 특성을 다음의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사람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성숙한 인간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앞으로오는 삶을 위해서 보다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이 영혼을 변형시키는 힘(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soul)이라고 가르쳤다. 사랑은 이기적인 자만심을 바꾸고 인간들을 연합시킨다는 것이다 p.309.

15) Nathaniel Hawthorne (1967), Pref.,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ed. Seymour L. Gross, New York : W. W. Norton, p.2.

Works Cited

- Allder, Ted Lewis (1992), *Nathaniel Hawthorne's Major Romances: Hoping Against Hope*, Carbondale, UP of Southern Illinois.
- Brodhead, Richard (1973),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Chicago UP.
- Cowly, Malcolm ed. (1947), *The Portable Hawthorne*, New York: William Solane Associates, Inc.
- Crowley, Donald J. (1970), *Hawthorne : The Critical Heritage*, New York: Barnes.
- Dillingham, William B. (1959), "Structure and Theme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1967), New York: W. W. Norton., pp. 449-459.
- Donahue, Agnes Mcneill (1985), *Hawthorne : Calvin's Ironic Stepchild*, Kent State UP.
- Doren, Mark Van (1949),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William Solane Associates, Inc.
- Hawthorne, Nathaniel (1967),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ed. Seymour L. Gross. New York: W. W. Norton 1967.
- James, Henry (1879),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 (1967), New York: W.W.Norton, pp. 360-364.
- Johnson, Claudia D. (1973), "Hawthorne and Nineteenth-Century Perfectionism", *American Literature* Vol. XLIV No. 4 Jan., pp. 307-317.
- Levy, Alfred J. (1971),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The Religion of Love"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by Nathaniel Hawthorne, ed. Seymour L. Gross(1967), New York: W. W. Norton., pp. 459-472.
- Martin, Terence (1965),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Twayne Publishers
- Turner, Arlin (1961), *Nathaniel Hawthorne :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Barns & Noble.
- Wagenknecht, Edward (1989), *Nathaniel Hawthorne : The Man, His Tales and Romance*, New York: Contium.
- Waggoner, Hyatt H. (1963), *Hawthorne : A Critical Study*, Rev. ed., Cambridge, MA: Belknap-Harvard UP.

Abstract

Redemption Implied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Shim, Bang-Ja

Nathaniel Hawthorne is one of the writers who were aware of evil inclinations lurking in human heart. While living in this world, man is often tempted to yield to the evil inclinations in his own heart. If a person yields to the temptation, he becomes a sinner. His soul cannot be redeemed without sincere contrition. If a person does not yield to the temptation, chances of his redemption are greater.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Hawthorne describes two groups of people. One group presents those who yield to the evil temptations and thus become sinners. There is no light of redemption for these sinners. The other group shows people who do not yield to the temptations and move toward redemption.

There are four sinners. Colonel Pyncheon is the first sinner. He covets Matthew Maule's land. But Matthew Maule refuses to part with the land, frustrating Colonel Pyncheon's ambition. So Colonel Pyncheon actively participates in condemning and executing Matthew Maule as a wizard. He yields to the temptation of greed. Matthew Maule, the victim, is the second sinner. He curses Colonel Pyncheon when he is executed, leaving legacy of malice and revenge to his descendants, blighting their chances of happiness. Young Matthew Maule, the carpenter is the third sinner. He manipulates beautiful Alice Pyncheon by means of mesmerism, instead of loving her with sincerity, and drives her to death. He yields to the temptation of revenge and black magic. Judge Jaffrey Pyncheon is another sinner who yields to the temptation of greed. He succeeds in leading people to believe that Clifford is responsible for their uncle's death, although he knows that Clifford is innocent. As a result, Clifford is imprisoned for 30 years as a criminal, and Judge Pyncheon inherits

their uncle's wealth which Clifford should have inherited.

There are four people who move toward redemption. Hepzibah Pyncheon overcomes the sin of pride and isolation due to her love for her brother Clifford. To support Clifford she opens a cent-shop, thus getting in contact with the world, and receives Phoebe as a helper into her family and Holgrave as a lodger. Clifford Pyncheon overcomes the temptation of hatred and revenge. Though he is an innocent victim, he never curses Judge Pyncheon and he never attempts revenge, showing a good contrast to young Matthew Maule the carpenter. With faithful Hepzibah's help, and due to his affection for Phoebe, he overcomes his terror of the world and Judge Pyncheon. He returns to his house with Hepzibah after his night flight, entering a new phase of a peaceful life after Judge Pyncheon's death. Phoebe Pyncheon overcomes the sin of pride, the hereditary sin of the Pyncheons. As a girl bred in the country, she is not proud or affected as other Pyncheons are. Simple, affectionate, and practical, Phoebe is sympathetic toward Hepzibah and Clifford and she responds to Holgrave's affection with sincerity, exerting healthy influence on other members in the Pyncheon House. Holgrave overcomes the temptation of black magic. He finds out that he can mesmerize Phoebe. However, unlike his ancestor Matthew Maule the carpenter, he does not resort to mesmerism to win Phoebe's heart. He genuinely loves Phoebe and respects her feelings, and finally he succeeds in winning her love.

In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Hawthorne implies that a human being can move toward redemption and happiness if he or she overcomes various temptations often hidden in his or her own heart.